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애란

2009년 8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용 환

김 애 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애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8월

A Study of Teaching Methods with the
Utilization of Various Materials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e-ra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ng-hwa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09. 8.

The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Yong-hwan Kim, prof. of Art Educati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도방안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김애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용환

미술교육의 역할은 미술과목을 통한 정서 함양과 창의력을 증진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 계발이며, 이 창의성 계발은 모든 학문 발달의 발판이 되는 연계성을 제공한다. 이는 미술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창의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미술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성을 불러 일으켜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미술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과 흥미와 관심은 있어도 자신감이 결여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활동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선다. 특히 초등학생인 경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더욱 역력하다.

연구자가 수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해 본 결과 미술과목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강제성이다. 미술과목이 심상표현과 상상력, 관찰력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의적 강요에 의한 아동의 수동적인 태도로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점이 연구자로 하여금 아동이 자발적인 수업 참여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 결과로서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접근 방법 중 하나는 재료를 통한 창작 활동이었다. 말하자면 미술과목에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에게 접근 계기로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했다.

지도 방법의 주안점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초등 저학년인 경우, 낮은 집중도로 인하여 흥미위주의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재료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전학년 중 미술과목에 대해 가장 무관심 경향이 있는 중학년인 경우, 흥미와 깊이를 갖는 기회의 장이 되게 하였다. 즉, 각 재료가 갖는 특성을 통하여 호기심과 재미를 알고 미술과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였다. 표현력부분에서 양극의 현상이 두드러진 고학년은 연구자 입장에서 심화과정과 보완과정으로 나누어 지도하였다. 심화과정은 표현력 향상에 역점을 두되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는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보완과정은 표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로서 재료의 병행이 완충제 역할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유도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방법적 측면인 지도방안 연구의 본질은 미술재료를 병행한 표현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사고의 전환을 요하는 창의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중점사항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이다.

첫째, 재료의 적절한 사용법을 통한 아동의 감각을 향상시키는 기본기의 터득, 즉 평면작업에서는 손끝에서의 느낌과 양, 농도에 따른 변화를 아동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체작업에선 주로 접착제의 성질과 타이밍, 힘 조절이 형을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재료 병행을 통하여 평면작업과 입체작업에서 상호 응용력을 키우는 것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평면작품에 제한하지 않고 학교의 열악한 교실 환경 속에서도 입체 표현 활동을 최대한 진행하였다.

셋째, 각 재료의 성질을 알고 적절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증대이다. 즉, 재료에서 또 다른 주제를 연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한 것이다.

연구자의 재료 활용법과 기법 강조는 자칫, 학생들이 기능적 측면에 입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견제로써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동기부여과정에서, 예시자료를 통한 의사소통의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또한 주제 자체를 부각시키고 표현과 감상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단체 수업에서 오는 교사의 일방성과 학생의 수동성에 대응하여 연구자는 도입 단계에서 모션을 적극 활용하여 주제의 느낌표현을 최대화 하려고 하였다. 주제를 알리려는 연구자의 말 없는 몸짓에서 아동들은, 산만한 행동을 하다가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때 아동들은 쉽게 동화 되며 연구자의 몸짓을 보고 그 무언가의 형태를 연상함으로써 상상과 창의력을 동원하였다. 연구자가 의도했던 대로 아동들과 동기부여의 질의응답 과정이 진행되면 교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몰입과 흥미로움이 형성되고, 미술과목에 위축된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의 기회 제공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주제를 극대화하여 표현하려는 것은 미술교육의 한 방법으로써의 매체이자 의지임을 알리는 바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각도로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핵심적 열쇠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의 체험은 미술에 흥미가 없었던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해 주었다. 재료라는 매체를 통한 방법상의 지도 목표는 창의적인 표현력 신장이다.

창의력의 원동력은 자신감이며,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온다. 또한 그 자신감이 형성 되려면 표현력이 향상 되어야 한다. 표현력의 향상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감각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인데, 감각이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감동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본다. 표현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매 시간마다 활동과정에서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느낌 표현의 어휘들을 사용하여 기본기의 개념을 일깨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의 내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시에 있는, 노형, 신광, 영평 세군데 초등학교의 각 반 저학년 20명, 고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결과이다. 또한, 대정 청소년 수련관의 초등학생과 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초등학생의 각 반 20명이 추가로 진행 되었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한 이유는 각 학생의 개인차와 학년별 연계성에서이다. 즉, 각 학년 특징 면에서 1, 2학년은 3, 4학년 지도에 단서를 던져줬고 3, 4학년은 5, 6학년 심화 지도의 단계를 제공하는 반면, 학년 별 일반성과 달리 돌출되는 각 학년 개인차 발생은 대상의 적

용범위에 일임되는 일률적, 지도방식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개인차의 존중이 야말로 미술교사가 첫 번째로 자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는 미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료활용과 기법이라는 방법적 매체를 통하여 공식적, 기계적인 잣대가 없이도 눈짐작으로서 비율에 대한 안목을 길러내는 감각성을 길러내고자 하며, 나아가 미술을 통한 창의력 증대의 실현을 이루고자 한다.

다양한 재료의 체험으로 아동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는 아동들이 나타날 것이다. 발상의 전환적 사고가 보편화 되어지는 시대에서 미술적 감각을 길러내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타 분야에의 창의적인 연계성을 발산하는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본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3
1. 미술교육과 창의성의 관계	3
2. 아동미술교육의 목적	6
1) 아동미술교육의 방법론적 접근	7
2) 다양한 재료활용의 중요성	10
3) 재료를 통한 미술교육의 방법모색	12
III. 지도의 실제	14
1. 수업 설계	14
1) 학습지도안의 필요성	14
2) 수업과정	15
2. 수업 모형	18
3. 분시학습 지도안	19
1) 저학년	19
2) 중학년	33
3) 고학년	47
IV.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6
부록	70

표 목 차

저학년(1, 2학년)

표 1. 안경 낀 사람	19
표 2. 크로키조명등	21
표 3. “변신 짱”	23
표 4. 승마장풍경-스텐실기법-	25
표 5. 냉장고	27
표 6. 비-보이 댄스.....	29
표 7. 지우개 완화.....	31

중학년(3, 4학년)

표 8. 셀로판지구성	33
표 9. 해바라기-야채 찍기-	35
표 10. 패션페인팅.....	37
표 11. 먹물드로잉-자전거-	39
표 12. 과자로 만드는 세상.....	41
표 13. 섬 이야기 -곡식모자이크.....	43
표 14. 나무조형	45

고학년(5, 6학년)

표 15. 나무가 보이는 풍경-지끈 표현-	47
표 16. 아연판 석고부조	49
표 17. 요리퍼포먼스	51
표 18. 한지조명등	53
표 19. 발포석고조각	55
표 20. 페이스페인팅	57
표 21. 그래피티 -스프레이그림-	59

작 품 목 차

작품 1.	20
작품 2.	20
작품 3.	22
작품 4.	22
작품 5.	24
작품 6.	24
작품 7.	26
작품 8.	28
작품 9.	28
작품 10.	30
작품 11.	30
작품 12.	32
작품 13.	34
작품 14.	36
작품 15.	36
작품 16.	40
작품 17.	40
작품 18.	42
작품 19.	42
작품 20.	42
작품 21.	42
작품 22.	42
작품 23.	44
작품 24.	46
작품 25.	46
작품 26.	46
작품 27.	46

작품 28.	48
작품 29.	50
작품 30.	50
작품 31.	50
작품 32.	50
작품 33.	52
작품 34.	52
작품 35.	54
작품 36.	56
작품 37.	56
작품 38.	58

활동사진 목차

활동사진 1.	32
활동사진 2.	34
활동사진 3.	38
활동사진 4.	38
활동사진 5.	42
활동사진 6.	42
활동사진 7.	48
활동사진 8.	54
활동사진 9.	58
활동사진 10.	60
활동사진 11.	60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자가 수년간 아동들을 지도해 본 결과 특별히,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미술교육을 받는 많은 아동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대부분은 타율적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다보니 무엇을 해도 수동적 행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생활 태도에선 창의력을 길러 내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연구자의 지도와 무관하게 ‘어떻게요?’ , ‘못해요’ 라고 반문하며 사고 자체를 거부하는 아동들은, 여러 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러한 아동들의 공통적 특징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라고 말하기를 일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했다는 창작활동의 의미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술과목이 싫은 아동들은 시작과 동시에 다했다고 고함을 질러대며 수업의 맥을 일순간에 끊어 버리기 십상이었다. 마땅히 결과물은 기대 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와 다른 학생과 단 몇 초간의 대화조차 기다리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이 대부분인 교실 풍토에선 의도했던 학습 지도가 실행이 안 되었다.

이에 수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교육적 방법 모색으로, 매체를 통한 접근에 매진하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재료의 병행수업은 흥미를 유발하여 기존의 미술활동에 거부감을 갖았던 대부분의 아동들이 관심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발적인 심상표현을 향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써, 표현력의 향상은 아동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계발 시켜 준다. 재료를 활용한 지도 방법상의 접근목적은 궁극적으로 창의력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다양한 재료의 체험은 새로운 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상상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활동에 이용한 재료들을 예로써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잘 구겨지고 쉽게 잘라지는 반투명성 셀로판지는 안경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활동 과정으로 아동들은 셀로판지의 반투명성을 이용하여 어항이란 또 다른 주제

를 연상해 낼 수 있다. 다음, 그 자체로서도 작품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다양한 한지와 한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뻗뻗하게 살릴 수 있는 밀가루 풀의 성질을 이용하여 한지조명등 작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더욱 심도 있는 한지 조명등을 창작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공예철사와 다소 강한 철사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한 아동들은 그 재료 자체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된다. 또한 맑은 느낌의 효과를 내는 수채물감과 수채물감에 비해 붓 자국이 덜한 포스터물감, 아크릴 물감처럼 다소 걸쭉한 느낌이 나면서 거의 지워지지 않는 직물용 물감 등 여러 가지 물감의 특성을 체험함으로써 그 특성에 알맞은 창조적인 형태를 계획하고 표현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드럽고 무른 성질이 있는 아연판재료 사용을 통하여 부조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동들은 새롭고 특별한 형태나 주제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아동들에게 이러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은 미술교사가 해야 할 몫이다. 미술을 거부하는 아동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미술교사의 설득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교사가 한 재료로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에 극한 시키면 안 되며 다양한 주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사고의 길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점이 다양한 재료 체험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아동들의 특성상 재료의 사용은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 미술교육에서 창의성 발달을 위한 재료라는 매체는 표현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재료의 활용으로 미술에 흥미를 심어주는 것이며, 아동들로 하여금 미술과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여 이를 계기로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것이 연구의 필요성임을 말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초등학교 세 곳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남원, 대정 청소년 수련관의 수업을 통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방법으로서는 학년구분을 저, 중, 고로 하여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의 각 7개씩 총 21개 주제 교수 학습 활동 안을 토대로 작품 분석과 수업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교수 학습 활동 안으로 정한 작품 들은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실험적 활동이 높은 내용 위주로 하였다.

분석된 작품선정의 기준은 해당 시간, 흥미도가 높았던 아동의 작품 순으로 하였다. 수업에 제대로 참여한 아동의 활동이 근거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작품 선정에 대한 연구자 주관성의 배제와 아동들 결과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31점의 작품들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술교육과 창의성의 관계

“미술교육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창조하는 예술의 근본적인 본질을 떠나서는 가능할 수 없다. 즉 대상이 지닌 새로운 뜻이나 가치를 감각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행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일컬어 창조성의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다.”¹⁾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술의 본질과 학습자의 심리,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교육이 인간 형성, 또는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

1) 권상구(200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p.10.

고 있고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전인이나 자아실현이라면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은 함축하여 미적인간이라 할 수 있다.” 2) “미술교육의 특성으로는 미술의 형식면에서 조형성을, 그 형식이 담겨지는 내용면에서는 창의성을,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형식이 감상된다는 면에서는 정서성을 들 수 있다. 미술교육의 특성은 미술이라는 영역의 특성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교과교육이 갖는 특성을 말한다. 즉 미술교육이 다른 교과 교육과는 다른 특성으로 이는 미술이라는 특성에서 주로 기인한다.” 3) “미술교육은 미적 표현이나 정서의 함양 뿐만 아니라 표현발달 단계에 따른 예리한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성취감, 적극적인 지각 능력 발달과 협응력의 함양까지를 포함하는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아닐 수 없다.” 4)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한 개성적 창조성을 발휘시켜 바람직한 인간상을 계발하고 육성하는데 있다. 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을 조형화하는 미술교육은 이미지와 감동을 통한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므로 의식세계에서 가장 깊이 작용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5)

로웬펠드(Lowenfeld) 6)는 미술을 통한 인간 교육을 강조하면서 미술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미술에 의해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술표현은 내재하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

2) 윤명술(2006), 창의성 계발의 아동화 지도, 미술공론사, p.12.

3) 임정기 외 (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25.

4) 안영가, 김춘일(1991),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p.5.

5) 김삼량(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4.

6)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1903~1960, 오스트리아)는 치첵(Franz Cizek, 1865~1946, 오스트리아), 리드(Herbert Read, 1893~1968, 영국)와 함께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대표학자이다. 그의 미술교육사상은 심리학자로서 미술교육을 연구 한 점, 순수미술을 경험한 화가인 점, 인도주의 정신에 의한 점, 진보주의 교육사상에 의한 점의 네 가지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웬펠드는 빈 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교육학, 미술사 등을 연구하고 맹아학교 교사 등의 교직경력을 거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교육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금세기 최대의 미술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는 그는 미국의 미술교육을 학문적인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켰으며 나아가 세계 미술교육 연구에 많은 공적을 남김으로써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발전시켰다. 특히 발달단계에 따라 미술표현을 분류하고 그것에 따라 주제, 재료, 동기부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미술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pp.273~274.

어 왔다. 이는 스스로를 드러내 놓는 적극적인 표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표현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기표현을 창의적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미술활동을 통한 창의성의 계발을 위해서는 아동이 느낀 것이나 경험 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피아제(Piget)⁸⁾는 교육의 근본 목적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을 해결하는 기술보다는, 보다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며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9) “창의성 중심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흐름이며 교사들이나 미술교육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 있다.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무엇보다도 미술교육의 무게 중심을 아동에게로 옮겨 놓았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이전의 미술교육은 미술가를 기르거나 산업발달에 필요한 디자이너를 기르기 위한 미술교육이었지만,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었다. 아동이 스스로 자유로운 내면의 자기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인 중심 미술교육에서 아동 중심 미술교육으로의 관점의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미술교육을 인간이나 교육에 중요한 위치에 잡게 했다는 것이다. 창의성 중심미술교육은 미술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며 교육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창의성 중심미술교육은 미술이 본질적으로 줄 수 있는 목표보다는 교육의 일반 목표인 창의성이나 이성과 감성의 조화 등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셋째, 미술교육에서 표현과정과 발달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의 미술교육은 미술가나 산업디자이너를 기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결과중심, 작품중심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표현과정은 단지 작품과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학생들의 발달과정도 학습에 거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지만, 창의성 중

7) 배혜진(2006), 미술 방과 후 학교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표현기법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8) 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J.Piget)는 아동들이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 예상할 수 있는 패턴에 따라 변화하며, 아동이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작업의 유형이 발달단계와 나이와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Elliot.W.Eisner 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 p.77.

9) 이서현(2008), 아동미술교육의 창의성계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표현기법연구, 석사학위논문, p.24.

심 미술교육에 의해서 발달 단계에 맞는 표현과정에서 창의성이 계발된다는 주장에 의해 표현과정과 발달과정이 아동표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0) 분명한 것은 어떤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창의적인 사고의 주체인 개인을 발달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창의적인 성장은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아동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형화하여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11)

2. 아동미술교육의 목적

“아동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하여 인격발달을 돕는다는 간접적, 교양적 성격으로 미적 표현 및 감상을 통하여 개인의 미적 정서와 창의성의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기 까지, 즉 만 6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가정보다 더 확대된 세계에서 아동 스스로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해간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보다도 또래와 사회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또래 시기라고도 한다. 이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학교 환경으로서의 교사는 아동의 거의 모든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아동관, 교육관, 교직원관을 비롯하여 자기 작업에 대한 신념, 가치, 그리고 교사의 인간 특성 등에 따라 아동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세심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동의 성장 수준과 미술표현의 발달단계와의 관계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동이 특별한 미적 능력 및 지각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연구의 기초위에서 결정된다. 아동의 창조적 시각 표현 능력은 아동의 일반적 성장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 변화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 분석, 검토하여 미술교육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이러한 조형 표현의 발달단계와 그에 따른 표현의 특징을 파악하면 아동의 미술표현을 좀

10)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71.

11) 김성기(2007), 입체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2) 문형준(2000),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p.12.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고 또한 수업지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¹³⁾ “아동미술교육에 대한 로웬펠드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동은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미술은 아동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매개체이다. 셋째, 미술이나 교육 그 자체 보다는 아동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이 더 중요하다. 넷째, 아동의 미술과 어른의 미술은 다르므로 교육에서 아동에게 어른의 관점을 부과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아동의 미술표현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여섯째, 모든 동기부여, 주제, 재료 등은 발달단계에 맞게 제시 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사는 아동의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격려하는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 여덟째, 제작결과보다 표현과정이 더 중요하다. 아홉째, 아동의 표현유형은 시각형과 촉각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각형만큼 자신의 내면을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촉각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⁴⁾

1) 아동미술교육의 방법론적 접근

교사의 열정만으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하다. 미술과목 그 자체를 거부하는 아동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연구는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하게 해 주었다. 성공적인 교수 학습 활동은 아동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말한다. “아동의 작품에서 성취 기준이 되는 것은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재료의 사용과 형태의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이나 안정된 움직임으로 규정된다. 상대적으로 신중함은 전체 작업에서 형태나 재료 사용의 경직으로 나타난다.”¹⁵⁾ 따라서 미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동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역할인 매개체가 재료라고 본다.

(1) 미술교사의 역할

13) 임정기 외(2006), 전계서, pp.120~121.

14)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p.276.

15) Elliot.W.Eisner 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p.211.

“미술교사는 방법적인 교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야만 계속성이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6) 즉, 교사가 학습목표에 따른 일관성을 갖고 아동들을 지도하려면 방법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다양한 경험은 지도상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 데 기초를 이룬다. “모든 미술능력은 교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미술지도에 의해 개발되고 학습된다. 이는 간섭과 구분해야 하며, 아동의 발달 과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지도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교육이 필요하고 미술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17) “교사의 역할은 아동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 아동의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자연스럽게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다음의 세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창의성으로서의 감수성이다. 교사는 감수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야만 아동의 상황을 빠르고 분명하게 파악하고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감정이입능력이다. 교사는 아동의 정서와 감정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아동의 요구에 관련한 지식과 이해이다. 아동의 욕구와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에 알맞은 교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요구보다 아동의 요구를 중시해야 한다.” 18)

“미술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뿐만 아니라 미술교과가 갖는 기본 성격 및 미술수업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자질이 함께 요구된다. 첫째, 미술은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가치의 전달보다는 아동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미술교사는 고정된 지도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아동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아동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표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둘째, 미술교사는 아동들의 미술표현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재, 참고작품, 재료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술은 시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얻어진 감정, 사고 등을 다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시·지각을 길러주어 직접 생활 속에서 정서적이고 시각적인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16) 김정(1993), 세계의 미술교육, 예경, p.8.

17)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p.190.

18)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전게서, 예경, p.275.

록 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미술은 물질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미술교사는 다양한 표현방법, 재료 등의 특징과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표현 활동을 위한 공간, 재료, 용구 등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9) “교사는 아동 개인의 실기진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어느 아동이 특정한 재료를 유달리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시간을 단축하여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끝낸다. 미술 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탐구와 창작 열의가 솟구치도록, 재료의 적절한 활용을 돕는 일은 미술교사가 선도해야 할 부분이다. 학습에 필요한 재료는 그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술활동은 아동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교사는 아동의 심미적 표현과 건강한 성격형성을 기르는데 조력해야 한다. 미술교사의 역할은 발달되고 있는 아동들의 인간교육을 행한다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

(2) 교육 환경

재료를 활용한 미술수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주변 환경이다. 아동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재료를 활용하는데 방해 받지 않는 최적의 교육여건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아동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표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고무 판화나, 발포 석고 조각, 또는 아연판 석고 부조 수업 등 작업반경이 큰 수업일 때는 넓은 책상이 적합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실 환경은 아동들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없는 조건이다. 먹물을 사용하거나 직물용 물감처럼 특별한 물감이나 접착제 등을 이용할 때는 교실 내 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사실 연구자가 접착제를 많이 이용하는 수업을 실시했을 때 접착제가 손에 달라붙어서 주의집중을 못하는 아동들이 속출했다. 그런 경우, 연구자는 접착제란 원래의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으므로, 활동 종료 시까지 자리를 뜨지 말 것을 아동들에게 반 주입식으로 권고한 적이 있다. 수도를 이용하려고 아동들이 다소 거리감 있는 장소로 이동하다보면 주위가 산만해져서 수업의 흐름을 끊기 때문이었다. 재료를 사용하는 중

19)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142.

20) 권상구(200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p.108.

간에 무리 없이 손을 씻는 여건이 된다면 아동들은 끝까지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미술교육은 좁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이다. 만들기든 그리기든 대부분 좁은 책상에서 이루어진다. 좁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은 활동상에, 공간상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²¹⁾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공간적 교육 환경은 아동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밖에 각 재료에 맞춰 사용 편리한 기자재 등도 갖춰져야 한다.

2) 다양한 재료 활용의 중요성

“아동미술은 적절한 재료와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촉진된다. 재료라는 매체를 통하여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아동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새롭게 표현한다. 경험은 호기심과 감수성을 강화 시킨다. 아동들은 자신이 창조한 형태들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발전시키고 가능성과 결단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것은 미술활동과정의 부산물들이며, 모든 교육자의 목표이기도 하다.”²²⁾ “미술교육에서 재료의 의미는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아동의 생각과 느낌,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시각적 구조로 변형시켜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의 활용으로 아동들의 사고의 전환을 꾀하고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³⁾ “재료란 넓은 뜻으로 창조과정의 결과에 있어서 예술적인 여러 형상을 산출해 낼 모든 전제로서의 소재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체재를 가리키며 흔히 물감, 목재, 철재 등 예술의 물질적 원료를 말한다. 예술작품에서 재료가 지니는 효과는 그 작품을 창작하는 미적 이념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티브, 형태, 표현 및 그 정서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²⁴⁾ “현대미술에서 재료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창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도 재료와 매체는 표현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동은 재료를

21)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p.194.

22) Elaine Pear Cohen · Ruth Straus Gainer(1998),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미진사, 서울대 미술교육연구회 역, p.31.

23) 김성심(2005), 미술교육에서의 재료 활용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24) 김삼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47.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과 느낌을 형태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낸다.” 25)

“재료를 보다 적절히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 다루는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데에서 창의적인 잠재력을 기르고 지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재료를 탐색하고 관찰하는 중에 시 지각이 예민하게 길러진다.” 26)

“아동 미술교육에 있어 재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아동들의 조형 활동은 대부분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재료를 통해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과 새롭게 표현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 시키고 감수성을 강화시킨다. 둘째, 표현을 위해 재료의 물질적, 감상적 체험을 거치게 되므로 아동의 물질적, 감상적 체험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셋째, 아동의 아이디어, 이미지를 적합한 시각적 구조로 변형시킨다. 넷째,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27)

(1)재료의 선택

“어떤 재료를 선택하여 작품 제작에 들어 갈 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료의 물성(物性)이다. 물성의 체험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목적성 보다는 재료의 내부에 잠재하는 표현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동들은 물성을 익히는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 해 본 후,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는 기법을 정하여 표현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28) “학습지도에 있어서 교사는 아동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게 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여 자기 나름의 기법을 고안하도록 지도해야 참신하고 흥미로운 조형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재료나 폐품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도와 아울러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9) “재료가 갖는 특성의 이해, 그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주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법의 선택은 표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

25) 이해경(2008), 확산적 재료·용구탐색 활용을 통한 창의적 미술표현력 신장,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6) 권상구(200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p.81.

27) 이해경(2008),상계서, p.13.

28) Elliot W. Eisner, 김인용 외(1995), 학문기초미술교육, 학지사, p.84.

29) 김삼량(2000), 전개서, p.153.

고 주제, 재료 및 기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30) “주제를 통한 재료 연구는 재료를 통한 창작의 발견이다. 재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때는 먼저 표현하는 주제의 내용에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어떤 재료의 특질에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지도 방법이 있다. 표현재료의 선택은 무엇보다 재료의 종류와 성질, 재료 이용 상의 유의점을 파악해야 한다.” 31)

“또한, 아동의표현은 저학년(1~2학년),중학년(3~4학년),고학년(5~6학년)의 각기 다른 발달 단계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같은 저학년의 아동들이라 하더라도 발달단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각 아동의 발달단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미술재료의 선택, 선택한 미술재료를 사용하는 시간, 작업할 집단의 아동과 그들의 요구에 대한 재료의 적합성,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어떤 미술재료도 어린이의 자아표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들이 새로운 재료를 접하게 될 때, 흥미도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처음 접하는 재료를 다루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료에 대한 미숙함은 흥미 있는 동기부여까지 상실시킨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재료 선택의 폭을 부여함으로써 점차 재료 활용의 경험이 쌓인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된다.” 33) 미술재료는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그들의 창작의욕을 가졌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표현의 주제, 주제에 맞는 재료의 선택, 재료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도구와 기법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훌륭한 예술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34)

3) 재료를 통한 미술교육의 방법모색

재료의 선택 부분에서 말했듯이 “교사는 학습을 전개할 때는 표현 내용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준비된 재료의 재질감과 특성을 살려서 그 재료에

30)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174.

31) 김삼량(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p.149~152.

32) 문형준(2000),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p.13.

33) 윤지영(2003), 재료확장을 통한 조소표현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34)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172.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료의 발견과 활용은 어디까지나 아동들의 학습활동 속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교사는 재료를 교수의 일부로 제시하거나 그 사용법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재료의 사용법이 그 물건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재료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도 교사는 아동들과 재료와의 관계를 교실이라는 상황적 의미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료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라고 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어떤 재료의 한 가지 사용법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사용법을 제시해 주어, 아동들 스스로가 발견해 내도록 지도해야 한다.”³⁵⁾ “아동이 자신의 이미지, 생각, 느낌을 재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 시킬 때 재료는 두 가지 면에서 아동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번째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든지 그것은 최종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료 그 자체에 시각적·촉각적 성격이 있어 최종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재료와 형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완성작품은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재료의 특성은 아동의 통찰력과 감수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재료 다루기 기능이 부족하면 재료는 매체가 되기 어렵다. 매체는 재료의 물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표현 양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자신의 이미지나 느낌을 자기가 준비한 재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 시킬 때 비로소 그 재료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술매체를 선택하고 발달 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다섯 가지 사항은 첫째, 아동의 성장과 자유로운 미술표현을 고려하여 아동이 미술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당한 재료를 판단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둘째, 모든 재료와 기법은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표현이 다른 기법에 의해 더 좋은 효과를 보다 쉽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면 기법이 잘못 적용된 예이다. 셋째, 교사는 모든 아동이 스스로 기법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적당한 기법을 찾아주는 교사의 어떤 도움도 어린이의 개별적인 접근을 방해 한다는 사실을 알

35) 김삼량(2000), 전계서, p.152.

36) Elliot.W.Eisner 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p.308.

고 있어야 한다. 넷째, 미술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솜씨는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 일뿐이다. 표현하려는 의도와 분리시켜 기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아동의 욕구에 알맞은 여러 종류의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을 다양한 제작순서에 접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가능성으로 아동의 감수성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37)

Ⅲ. 지도의 실제

1. 수업 설계

1) 학습지도안의 필요성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과 관점에서 교수학습계획안의 논의가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학습지도안의 작성이 필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도안을 작성해야만 학습의 요건을 빠짐없이 수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지도 활동은 유목적적인 활동이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장면에서 있을 수 있는 돌발적인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한 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만 일관성 있는 학습지도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습지도안이란 실제 지도나 하나의 수업 가설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신축성 내지는 역동성 있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연구와 그에 따른 활동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습을 계획할 때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각 아동이 어떤 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를 공감하는 데 기초한다. 그와 동시에 교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단순히 인정하는

37) Viktor Lowenfeld & W. Lambert Brittain(199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미술교육연구회 옮김, p.57.

데서 나아가 이들을 확장시키고 보다 풍요롭게 하고 예리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교수와 학습의 기본은 의사소통이다. 교사의 삶과 아동들의 삶이 갖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초월하는 경험의 공유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지도안은 어떤 재료나 매체가 사용될 것인가가 언급되어야 한다. 필요한 재료를 진술하는 것은 미술교사가 미술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구하고 혹은 조직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교사가 매체나 재료의 조직을 자발성이나 우연에 맡겨 둔다면, 그는 좋은 미술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소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재료를 간과하기 쉽다.” 38)

2) 수업과정

“미술교육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창조적인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39) “다양한 재료 경험을 통하여 시각개념뿐만 아니라 무겁다, 가볍다, 무르다, 딱딱하다 등의 체험으로 사고력과 상상력, 창의력 등을 풍부하게 해 준다. 우리가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것은 개성적이며 창조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학습은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표현기법의 발견에까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표현기법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발상단계에서 인상과 감동을 불러일으켜 자연 발생적으로 기법을 발견해내도록 유도하는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이 발상 단계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시간 배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40) “효율적인 동기 유발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언어적 토의이다. 언어적 토의는 동기 유발을 위한 일반적 절차로 자주 사용된다. 동기유발의 형태는 그것의 기본적 수단, 즉 구어로서 구체화 된다.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의 주제에 관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아동의 내면에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다. 둘째, 직접적인 미술경험이다. 아동들은 현장에서의 직접 관찰을 통해 느낌으로써 표현을 위한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축적할 수 있다. 셋째, 시각적 미술경험이다. 교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직접 체험이 어려울

38)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p.148~152.

39) 권상구(1989), 아동미술교육, 학문사, p.18.

40) 김삼량 (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48.

때 시각적 관찰을 자극하기 위해 인쇄 매체를 활용한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간접적 체험을 사용한다. 아이디어는 빈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매체를 통한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마음의 은행이 있어야 한다.” 41) 이와 연계하여 그 밖의 “동기유발의 방법에는 먼저,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목표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장소나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것, 또한 적당한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상상력을 자극 시켜주는 것, 시각적인 재료를 제시하여 감동을 갖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각자의 느낌을 연상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42)

“수업 과정을 발상 및 도입, 계획, 표현, 감상의 네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상 및 도입단계에서 미적 감각 및 정서를 기르기 위한 발상단계는 우선 아동의 흥미와 관심 따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 감정 및 감각의 실태를 중시하면서 학습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감각적인 내용을 잘 나타내어 주는 주제나 대상을 선택하는 일, 새로운 재료 또는 다른 기법으로 감각을 자극하거나 높이는 표현 가운데서 아동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 감각적인 경험을 위한 지도에서는 먼저, 아동 스스로의 느끼는 법을 존중하며 주제나 대상 그리고 재료, 용구 등 그것의 표현에 필요한 목적이나, 방법, 내용에 이르기까지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표현을 통한 조형의 기초적인 것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형감각이나 미적 정서까지도 기르자는 것이다. 둘째, 계획단계는 표현활동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기본조형과 감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따로 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형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에 배다시피 얻어지는 자주적, 감각적 태도와 이의 일반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생활화 그것이다. 언제나 우연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학습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필요성도 알아야 한다. 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만족스럽게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에서 접근할 것도 항상 생각하여 또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때 조형 활동의 보람이 더 큰 것이다. 셋째, 표현단계는 조형감각이나 미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이나 형 등 조형요소를 통한 표현을 많이 반복하는

41) 임정기 외(2006), 전계서, 예경, p.153.

42) 권상구(1989), 전계서, 학문사, p.100.

일이 중요하다. 아동들의 작품 결과를 중시하는 일보다는 그 과정에 더 비중을 두면서 조형감각 및 미적 감각의 본뜻을 스스로의 경우에서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러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객관화시키는 표현단계를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감상단계는 비록 우연의 효과로 나타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표현의 추구 끝에 나타난 작품을 늘어놓고 비교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것이 어떤 결과 끝에 생긴 것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점차로 감각적인 자아의 발견에 노력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감각 훈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의 특색이나 표현과정에 생긴 일들을 정리하고 또한 아동의 감각발달의 단계를 항상 감안하여 능력을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생활이 언제나 몸에 배도록 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표현에 얻은 감각을 최대한으로 살려주는 것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43)

43) 김삼량 (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148.

2. 수업 모형

단 계 (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1. 도입(10)	▷ ▶ 수업준비
2. 동기부여 →발상유도(15)	▷ ▶ 모션을 통한 주제 질문. ▷ 재료의 특성 설명.
	▷ ▶ 주제와 재료의 상관관계 질문. ▷ ▶ 학습목표 확인. ▷ 재료의 활용법 및 지도.
3. 구상(9)	▷ ▶ 판서 및 예시 작을 통한 관찰. ▷ ▶ 주제에 대한 경험 및 상상을 동원한 질의응답 과정.
4. 표현(43)	▶ 대략적인 표현. ▷ 표현 활동 시 ‘보는 거리’ 유지 강조. 주의사항 알림. ▶ 자기 작품 중간점검 후 보완, 수정. ▶ 주제의 분위기에 맞는 구체적 표현.
5. 감상(7)	▶ 다른 친구들의 작품과 비교 관찰. ▷ 재료를 통한 또 다른 주제의 연계 상상 유도.
6. 정리 및 차시예고(6)	▶ 도구와 주변 정리. ▷ 다음 시간 예고.

3. 본시학습지도안

1)저학년 (1, 2학년)

표 1. 안경 낀 사람

주 제	안경 낀 사람	대상	1,2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OHP필름, 검정유성매직, 셀로판지, 가위, 칼, 수채화도구, 시트지.						
학습목표	안경 만들기와 인물그림과의 조화를 통한 입체작품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만든 안경 얼굴에 착용하고 시선 모음. ▶▶다른 학생에게도 안경 착용 권함. ▷계속 안경 낀 채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 있는 수업이 될 것임을 유도. ▷안경을 칠관 전시된 예시그림에 대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그림 전시. -안경작품 제시.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질문. ▶교실 내 안경 낀 친구의 모습 관찰. ▷재료의 종류와 각 특징 말함. ▷제작 과정 설명. ▷인물 스케치, 채색방법 예시. ▷▶전체 재료 질문. 						
구상 (9)	▶자기가 표현 할 인물과, 안경의 대략적인 형태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스케치, 채색표현. ▶OHP필름에 유성매직으로 안경형태그리기→가위로 오리기→셀로판지 붙이기→시트지로 테두리 꾸미기. 					-안전을 위하여 칼 사용은 연구자만 함.	
감상 (7)	▶친구들의 작품들과 비교 감상, 직접 써 보기.						
정리 및 차시예고 (6)	▶도구 정리와 주변정리. ▷다음 시간 예고.						

< 안경 낀 사람 >



작품 1. 1학년 아동



작품 2. 2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1.의 경우는 색상표현에 대하여 자기주장이 강한 아동이었다. 인물의 머리색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여 황토색상 톤으로 채색했다.

작품 2.의 경우는 수업 중 아주 산만하고 미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늘 ‘다했어요.’, 또는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수업 중 매번 달아나는 것은 부지기수였는데, 이 작품을 할 때는 말없이 열중하였다.

▣ 수업결과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호기심을 보였다.

안경을 인물화에 끼워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직접 자기가 착용할 수도 있다.

이 점이 아동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작품. 2 아동의 경우처럼 미술에 반감을 갖는 학생들에게 접근 할 수 있는 흥미 거리의 주제였다. 결과적으로 재미가 있으면 아동들은 관심을 보였다.

표 2. 크로키 조명등

주 제	크로키 조명등	대상	1,2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2회
재 료	A4용지, 검정유성매직, 철사, 가위, 끈, 한지, 소켓, 전선, 플러그, 전구, 밀가루 풀, 붓, 광택제, 신문지, 마스킹 테이프.						
학습목표	인물크로키를 돋보이게 하는 실용적인 조명등 만들기.						
단 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작품예시, 조명등 점등. ▷▶제작과정 질문. ▶조립된 전구세트예시. 					-크로키 조명등예시.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알림. ▷▶크로키에 대한 질의응답. ▷다양한 인물 동세, 모션으로 예시. ▷▶전체재료 질문. ▷제작 과정 예시. 					-밀가루 풀, 바르는 방법 지도.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등 크기 예상. ▶교실 내 친구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 ▶한지 색상 선택.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매직으로 인물크로키→나선형 철사, 심채 만들기→4~5cm 간격의 A4용지 세로로 붙이기→A4용지 위에 한지 붙이기→손잡이 끈 묶기→인물 크로키 조명등에 붙이기→테이프 고정→광택제 바르기. 					-철사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빛나는 인물 크로키 조명등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가루 풀을 깨끗이 닦아내고 주변 정리. ▷다음시간예고. 						

< 크로키조명등 >



작품 3. 1학년 아동



작품 4. 2학년 아동

▣ 작품 분석

작품 3.의 경우, 평소 꼼꼼한 여자아이의 성격이어서 활동 과정 중 조명등이 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애들아, ○○의 조명등은 자연스럽게 휘어져서 오히려 멋있지 않니?’ 라는 유도질문으로써 자연미에 대한 이해를 시켰다.

작품 4.의 경우는 평소, 난감할 정도로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였다. 이 결과물은 그래서 보람이 더 크다.

▣ 수업결과

아동들이 밀가루 풀의 느낌을 의외로 싫어하였다. 그러나 풀기가 마르는 과정에서 나온 형태를 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년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있어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작품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3. '변신 짱'

주 제	'변신 짱'	대상	1,2학년	장소	영평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잡지책, 철사, 물풀, 딱 풀, 색종이, 골판지, 가위.						
학습목표	형태의 강제 결합 활동을 통한 포토몽타주 상상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강제 결합 예시. →할아버지 얼굴에 발레를 하는 여자의 몸 결합. →호랑이의 사진에 날개사진 결합. ▷포토몽타주의 뜻과 특징 알리고 분위기에 대한 대화. 					-예시 작 및 제작과정예시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질문. ▷▶기묘하고 우스꽝스런 형태들에 대한 대화. → '형' 을 연결시킬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했는지 질문. ▷▶상상력 북돋기. →가장 말이 안 되고 처음 봤을 때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작품이 제일 잘 한 것이라는 게임. ▷▶필요한 재료 질문. 					-수업 흐름 읽지 않도록 주의집중시킴.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신 짱' 이라는 주제 구상. ▶준비된 잡지책에서 상상 모으기. 						
표현 (43)	▶잡지책 사진, 색종이, 골판지로 표현.					-테두리 부분 잘 붙이도록 지도.	
감상 (7)	▶재밌게 표현된 다른 친구들의 작품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정리와 도구 잘 챙김. ▷다음 시간 예고. 						

< “변신 짱” >



작품 5. 1학년 아동



작품 6. 2학년 아동

▣ 작품 분석

작품 5. 아동의 경우는 평소, 소심한 성격의 여자 아이이다. 일반적 생각에서 크게 이탈한 형태표현은 아니어도 나름대로는 과감성을 보였다.

작품 6.의 남학생 아동은 미술시간을 거부하진 않으나, 수업의 흐름을 산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강한 아동이었다. 생활태도가 자유분방한 편이다. 이런 생활 태도가 미술에서 창의를 불러일으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포토몽타주 처럼 기발함을 요하는 작품에서 실력 발휘를 할 것 같아도 오히려 수동적으로 임했다. 그래서 작품 또한 단순하다.

▣ 수업결과

우선은 아동들이 즐거워하는데서 이 수업의 의의가 있었다. 아동들이 지루한 것 같다고 느낄 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제이다.

표 4. 승마장 풍경 -스텐실기법-

주 제	승마장 풍경 -스텐실기법-	대상	1,2학년	장소	대정청소년수련관	시수	1회
재 료	OHP필름, 스폰지, 가위, 수채화도구, 유성 네임 펜.						
학습목표	스텐실기법으로 말 연상 그림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준비. ▷▶ 예시 작을 보여 주고 풍경에 대한 대화. ▷▶ 표현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 찍는 것과 그리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대화. 					-예시 작.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질문. ▷ 스텐실 과정 예시. ▷ 모양 판을 뒤집었을 때 반대형태로 나오는 과정 강조. ▷▶ 말 그림과 말 사진을 제시하여 형태의 특징 질의응답. ▷▶ 승마장에 가 봤던 경험에 대한 대화. ▷ OHP필름의 활용도 설명. ▷▶ 전체재료 질문. 					-제작과정예시. -말 그림, 사진예시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상상. ▶ 말 형태 구상. ▶ 배경 표현과 말 형태를 찍어낼 위치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 네임 펜으로 OHP필름지에 말 그리기 →가위로 오리기→투명테이프로 오린 형태 고정 →스폰지로 찍기→OHP필름지를 씻고 물기 제거 후 뒤집어 찍기. ▶ 주변 환경 표현. 					-이미 찍어낸 말 형태, 번지지 않도록 주의 시킴.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눔.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승마장 풍경 -스텐실 기법- >



작품 7. 2학년 아동

▣ 작품분석

오른쪽 부분의 나무와 말 표현에서 일부의 실수가 엿보이긴 하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중첩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 하게 된다. 이 학생의 경우는 미술활동에 관심이 많고 끈기도 있는 남학생이다. OHP필름지의 찍고, 씻는 반복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을 텐데, 잘 참고 인내력을 발휘하였다. 활동과정 중 아동이 다소 어려워하는 기미를 보일 때, 아동 스스로 포기하거나 호소를 안 한 이상은 끝까지 지켜보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작품 7.**의 아동도 다른 초등 2학년생처럼 한, 두 번의 설명으로 거리감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

▣ 수업결과

작품 7.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원판은 한 가지 형태이다. OHP필름지의 말 모양 틀은 여러 장을 만들어 찍도록 할 수도 있었다. 판을 뒤집었을 때 반대로 찍히는 원리를 이해시키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각 학생당 한 개의 판만 이용하도록 하였다.

표 5. 냉장고

주 제	냉 장 고	대상	1,2학년	장소	신광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12색 유성매직세트, 흰색표지, 풀, 투명테이프, 칼, 가위, 수채화도구.						
학습목표	냉장고 이중그림으로 입체감 표현.						
단 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문처럼 오려서 뚫은 형태를 연구자의 얼굴에 댐. ▷문 여닫는 과정 2~3번 반복 예시. ▶▶연구자 모션에 대한 질의응답. ▶▶이 시간 주제에 대한 퀴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질문. ▷▶유도질문→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 ▷발상 질문 → ‘어보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냉장고 안이 텅텅 비었네요. 맛있는 음식들로 꽉, 채워주세요’ , ▷▶필요한 재료 질문. ▷제작 과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작품. -칠판 판서. -제작과정예시.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안 내용 상상. ▶▶서로의 집, 냉장고 안 내용 대화.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장고 그리기→칼집 내고 오리기→ 흰색 표지로 전체 둘레길이 2cm정도 넓게 오리기→ 풀이나, 테이프로 뚫린 부분에 붙이기→ 유성 매직으로 냉장고 안 표현→냉장고 주변 표현. ▶다양한 음식 스케치 한 후, 물감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을 위하여 칼 사용은 연구자가 함.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냉장고 문 열어 보기. ▷모서리가 찢어진 냉장고 접착제 보완 권유 → ‘수리 좀 해야겠어요’ .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정리와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냉장고 >



작품 8. 1학년 아동



작품 9. 1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8.의 아동은 장난이 심하면서 미술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외향적인 아동으로서 조금의 끈기 있는 표현활동도 참아내지 않았다. 이 <냉장고>수업 과정 내내 투덜거렸다. 입으로는 ‘에이, 시시해!’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은 계속 열고 닫아보기를 반복했다.

작품 9.의 아동은 갓 입학 한데다가, 내성적인 아동이어서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기에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한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가장 조심스럽다.

▣ 수업결과

이 주제는 신학기 때 설정해보니까 적절했다. 초등1,2학년의 아동들에게 ‘미술이란, 재밌는 것’ 이라는 각인을 시키기에 처음시기가 알맞다. 혹시라도 아동의 능력보다 높게 정한 심화된 수업은 미술에 호기심을 갖고 있던 아동들까지도 반감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수업 경험은 아동에게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수업은 표현력이 풍부한 아동에겐 이중그림의 효과로 무료함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표 6. 비-보이 댄스

주 제	비-보이 댄스	대상	1,2학년	장소	신광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반짝이 종이, 풀, 가위, 수채화도구.						
학습목표	신나는 비-보이 댄서의 동세 표현.						
단 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 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랩, 힙합 음악 청취. ▶▶래퍼들에 대한 질의응답. ▶▶비-보이댄서들의 복장과 특징 있는 몸짓에 대한 대화. ▷인물의 다양한 몸동작을 모션으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랩, 힙합 음악, 테이프. -몸동작 예시.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확인. ▷비-보이댄서 사진 자료 제시. ▷▶필요한 재료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작품. -칠판 판서. -제작과정예시. 	
구 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동작 상상. ▷대표적인 동작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보이 댄서사진자료. 	
표 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늘어뜨린 티셔츠 형태로 움직임의 효과 표현. ▶반짝이종이로 조명 느낌 표현. ▶주요 인물 강조. 						
감 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서들의 움직임 감상. 						
정 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정리와 도구 정리. ▷다음 시간 예고. 						

< 비-보이 댄스 >



작품 10. 1학년 아동



작품 11. 2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10.의 아동은 반짝이 종이를 아주 꼼꼼하게 잘 붙였다. 동세표현에서 좀 더 과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작품 11. 경우는 꼼꼼하진 않으나 댄서들의 박진감이 느껴진다. 바탕의 반짝이 종이를 비스듬한 각도로 붙인 것은 연구자의 지도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의 표현 이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훌륭하다.

▣ 수업결과

‘비-보이 댄스’ 라는 주제 자체가 아동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연구자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평소, 아동들이 인물의 경직된 인물표현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로운 동세 표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표 7. 지우개 판화

주 제	지우개 판화	대상	1, 2학년	장소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시수	1회
재 료	지우개, 면장갑, 조각도, 연필, 한지, 스케치북, 가위, 풀.						
학습목표	지우개로 판화의 기초과정 체험.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판화 작품 예시, 원본형태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판화활동 시, 방향감에 대한 사전 계획을 알림. ▷▶음각, 양각 뜻과 판화의 복수성 알림. ▷▶한지와 판화의 조화에 대한 대화. 					-예시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확인. ▷예시 자료 제시, 다양한 형태 상상 유도. ▷조각도 사용법 지도. ▷조각활동 예시. ▷▶필요한 재료 종류 질문. ▷주의사항 알림. 					-예시자료. -조각도를 들고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무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상상 유도. ▶음각과 양각의 선택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치→음각, 양각 설정 후 파기→A4용지에 연습으로 찍기→다양한 색으로 여러 장의 한지에 찍기→잘 된 작품, 스케치북에 붙이기. ▶다른 친구의 원본 지우개로 바꿔서 찍기.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의 판화와 비교, 서로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정리와 도구 정리. ▷다음 시간 예고. 						

< 지우개 판화 >



활동사진 1.



작품 12. 1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12.의 경우는 1학년 남자 아동이다. 학년 수준에 비해 판화활동이 능숙했다. 그래서 활동 과정 중 특별히, 판화의 복수성을 잘 활용했다.

▣ 수업결과

활동사진 1.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장갑을 끼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동들이 조각자체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각도를 사용하는 수업은 아동들이 어리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가 판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들에 대한 믿음의 차원임을 전달하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2) 중학년 (3, 4학년)

표 8. 셀로판지 구성

주 제	셀로판지 구성	대상	3, 4학년	장소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시수	1회
재 료	셀로판지, 물풀, 자, 가위, OHP필름.						
학습목표	셀로판지로 변화, 통일, 균형의 조화로운 구성 작품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준비. ▷▶ 간단한 형태를 겹쳐 그려 매끄럽게 채색한, 구성 작품 예시 후 느낌에 대한 질의응답. ▷ 변화, 통일감, 비율, 등 조화로운 구성표현 예시. ▷ 구성작품, 셀로판지로 표현 할 것임을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로판지 구성 예시. -구성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의 뜻 질문, 학습목표 확인. ▷ 셀로판지에 영향을 주는 물, 풀의 농도 조절 예시. ▷ 과정 알림. → 네모, 세모, 원, 등 평면 도형 위주 표현. → 셀로판지를 겹칠 때 나오는 색상, 사전 계획. → 셀로판지의 특성과 자로 펴는 방법 예시. ▷▶ 필요한 재료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 예시.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색상의 셀로판지, 서로 겹쳐서 나열. ▶ 위치, 크기, 색상 배치의 조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로판지 조화롭게 붙이기→자로 조심스럽게 펴 바르기→모서리 제차 펴 바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로판지가 쪼그라들지 않도록 주의시킴.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간 겹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조화미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 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셀로판지 구성 >



활동사진 2.



작품 13. 4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13.의 경우, 셀로판지가 찢그라들지 않도록 신경을 쓴 흔적에서 신중함이 엿 보인다. 배색 처리가 좀 더 조화로우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작품 13.의 학생은 이 수업을 통하여 그리기 영역의 구성보다 재료 사용 면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함을 알았다.

▣ 수업결과

활동사진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은 물풀과 물의 농도에 따라 셀로판지가 오그라드는 정도를 알게 되었다. 활동사진 2.는 자를 이용하여 셀로판지를 반듯하게 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재료 사용의 체험은 아동들의 미술적 감각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한 주제라도 재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동들은 알게 되었다.

표 9. 해바라기 - 야채 찍기 -

주 제	해바라기 -야채 찍기-	대상	3, 4학년	장소	신광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수채화 도구, 과도 칼, 조각도, 면장갑, 쟁반, 무 우, 당근.						
학습목표	야채 모양 판을 이용한 해바라기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작품예시 후, 표현 방법 질문. ▷▶사진 자료를 통해 꽃의 특징에 대한 대화. ▷▶꽃의 측면형태 질문. ▷▶조각칼의 종류와 쓰임새 예시. ▷▶재료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바라기 사진 자료. -예시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과정 예시. ▷▶학습목표 확인. ▷▶필요한 재료 질문.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자료를 통한 해바라기 꽃 관찰. ▶배경과 구체적인 꽃 표현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 우, 당근을 각 전체크기 4~5등분으로 자르기→꽃의 각 부분 조각→찍기→줄기와 배경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조각 시, 칼 사용이 서툰 아동은 도와줌.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 감상, 잘 된 부분 관찰.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 도구 정리. ▷다음 시간 예고. 						

< 해바라기 - 야채 찍기 - >



작품 14. 3학년 아동



작품 15. 4학년 아동

▣ 작품분석

이 주제는 결과만 보면 학년 수준 난이도에서 다소 쉬운 활동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도와 칼 사용이 활동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이상의 수준이다.

작품 14.의 아동은 작품 15.의 4학년 아동보다 표현력이 좋다. 배경의 비 처리 또한 자발적인 구상이었다.

▣ 수업결과

아동들은 물의 배합 정도에 따라 작품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각도 사용을 통하여 재료를 다룰 때의 주의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신중성을 기르는데 이 수업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었다.

표 10. 패션 페인팅

주 제	패션 페인팅	대상	3, 4학년	장소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시수	1회
재 료	흰색 면 티셔츠 또는 청바지, 직물용 물감, 붓, 팔레트, 연필, 물통, 다리미, 8절 하드보드지, 드라이어, 면 손수건.						
학습목표	직물용 물감으로 자기 옷에 직접 그리기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준비. ▶▶기성품 옷과 손수 그린 옷을 대조 비교하여 대화. ▶열처리방법과 세탁과정 알림. ▶흰색 면 티셔츠나 청바지 울 굵기 차이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 예시. 					-티셔츠 또는 청바지페인팅 예시.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션페인팅의 뜻과 학습목표 질문. ▷▶물감 사용 전, 하드 보드지를 옷 안에 대는 이유 질문. ▷▶각 자의 표현에 대한 대화. ▷직물용 물감의 올바른 사용법 예시.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스런 표현 권장. ▷▶전체 재료 질문. 					-견본예시.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할 형태 상상. ▶문자 형태도 함께 고려, 전체색상 톤 예상. 						
표현 (43)	▶스케치하기→하드보드지 대고 물감으로 표현→드라이어로 말리기→손수건 대고 다림질.					-열처리 과정, 주의 깊게 지켜 봄.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작품 감상. ▶▶종이 그림과의 차이에 대한 대화.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 묻은 직물용 물감 깨끗이 닦기. ▶다음 시간 예고. 						

< 패션 페인팅 >



활동사진 3. 3학년 아동



활동사진 4. 4학년 아동

▣ 작품분석

활동사진 1.의 아동은 처음 접해보는 패션 페인팅 활동에 호기심과 진지함이 절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활동사진 2.의 아동은 자기가 입고 다닐 옷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다소 거친 면이 있는 성격의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활동을 했다. 드라이어기의 열처리과정을 그대로 숙지하고 임하는 과정이다.

▣ 수업결과

자기 옷에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선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다. 직물용 물감은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에 표현이 가능하다. 아동들은 자기 신발에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였다. 패션 페인팅 활동으로 남원의 아동들은 미술이 유용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체험했다.

표 11. 먹물드로잉 - 자전거 -

주 제	먹물드로잉 -자전거-	대상	3, 4학년	장소	영평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수채화도구, 한지, 먹물, 투명테이프						
학습목표	자전거를 수묵화로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예시 작품 제시, 수채화와 다른 점 질문. ▷▶표현과정 소개. → 먹물의 농담 조절 예시. → 미술재료의 지역적 구분에 따른 기준.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학습 목표 질문. ▶자전거 먹물그림을 통한 수묵화표현의 학습목표 확인. ▶형태에 대한 특징 질문. ▷▶드로잉과 수묵담채화의 뜻 알림. ▷과정 예시. ▷원본 그림, 계속 활용가능 알림. ▷▶필요한 재료 질문.					-자전거사진 및 그림자료. -칠판 판서. -제작과정예시.	
구상 (9)	▶관찰. ▶자전거와 어울리는 소감 내용 생각.						
표현 (43)	▶스케치→테이프로 한지 고정→먹물로 따라 그리기→ 배경에 소감 적기→연하게 수채물감으로 채색.					-선의 강약 유지 강조.	
감상 (7)	▶서로의 작품 감상 대화.						
정리 및 차시예고 (6)	▶주변과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먹물로잉 - 자전거 - >



작품 16. 3학년 아동



작품 17. 4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16.은 3학년 여학생이다. 자전거바퀴에서 볼 수 있듯이 꼼꼼하게 잘 그렸다. 연구자가 색이 있는 한지로 정한 이유는 바탕효과를 내기 위해서인데 이 작품은 원재료의 특성을 살리진 못했다. 교수 학습 활동 시 수목담채화의 표현을 예고했으나 이 작품은 진채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에게 실망스런 표정을 비춘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연구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이 아동의 주관 또한 소중하기 때문이다.

작품 17.은 4학년 남학생이다. 이 아동은 평소, 구속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역시 글을 기록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서 자율에 맡겼다. 또한, 채색도 거부하였다. 자전거바퀴에서 아동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중심점에 맞춰서 먹물선을 그려내는 것이 정말 귀찮은 듯 하다. 그러나 선의 강약처리에서 재미가 있다. 노력은 작품 16.의 3학년 여학생이 더 했는데, 결과는 훨씬 나아 보인다.

▣ 수업결과

먹물 냄새에 대하여 말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연구자는 각 재료의 냄새를 알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하는 편이다. 그 재료만이 갖는 독특한 냄새에 대한 자각은 미술적 감각을 북돋아 주는데 일조를 한다.

표 12. 과자로 만드는 세상

주 제	과자로 만드는 세상	대상	3, 4학년	장소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시수	1회
재 료	여러 가지 과자, 물엿, 초코시럽, 연유, 김, 8절 하드보드지, 접시.						
학습목표	재미있는 과자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과자들을 나열하고 주제에 대한 질문. ▷ 활동결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시식 시간 알림. ▷▶ 접착제에 대한 질의응답.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알림. ▷ 활동과정을 통한 물엿의 접착제 활용도 예시. ▷▶ 하드보드지 필요성에 대한 질문.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를 보고 연상되는 형태 예상. ▷ 의미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운 구상 권함.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보드지에 구체적으로 표현. → 물엿 접착제는 과자로 묻혀서 이용. →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주의. → 디지털 카메라 촬영.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 감상 후, 맛있게 시식.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과자로 만드는 세상 >



활동사진 5.



활동사진 6.



작품사진 18.



작품사진 19.



작품사진 20.



작품사진 21.



작품사진 22.

▣ 작품분석

활동사진 5.는 아동들이 잔뜩 기대에 차서 활동에 준비하는 모습이다.

작품사진 19.는 우주 정거장을 표현 했다고 한다.

▣ 수업결과

역시 맛있는 과자로 표현하는 활동이어서 아동들이 아주 즐거워했다.

표 13. 섬 이야기 - 곡식모자이크 -

주 제	섬 이야기 - 곡식모자이크 -		대상	3, 4학년	장소	대정청소년 수련관	시수	1회
재 료	나무판, 여러 가지 곡식, 목공본드, 검정유성매직, 커피, 수채화도구, 접시.							
학습목표	곡식 모자이크로 섬 풍경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예시작품 제시 후, 모자이크에 대한 질의응답. ▶섬 풍경에 대한 대화.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학습목표와 협동화 표현 예고 알림. →2~3명이 1조가 되어 곡식 모자이크 표현. ▷접착 방법 예시.							
구상 (9)	▶돌, 파도, 헤엄치는 사람, 바람 느낌 등 조끼리 서로 의논하며 구상.							
표현 (43)	▶스케치→곡식 붙이기→수채물감이나 커피로 배경 칠하기. ▶곡식 접착 확인.						-곡식 알갱이 잘 챙기도록 주의 지도.	
감상 (7)	▶자기가 한 부분과 전체를 비교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목공본드 등, 주변과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섬 이야기 - 곡식모자이크 - >



작품 23. 3학년 단체 작

▣ 작품분석

미술활동을 제주시 학생들보다 많이 접해 보지 못한 아동들이라 커피로 채색하는 것에 대하여 큰 반응을 보였다. 한 알 한 알의 콩을 붙이면서 신중을 기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참 대견하였다.

▣ 수업결과

이 작품은 2008년 7월 당시, 가파도에 ‘찾아가는 미술 체험’이란 프로그램으로 대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관한 활동이다.

섬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아동들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든 듯 했다. 작품결과에서 특별함은 안 보였지만 다른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협동심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눈에 띄었던 점은 아동들이 상대 친구나 동생들의 실수에 대하여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긴다는 것이었다.

표 14. 나무조형

주 제	나무 조형	대상	3, 4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나무판, 여러 가지 나뭇가지, 나무망치, 끌, 면장갑, 정전가위, 목공본드, 눈알, 낙엽, 커피, 수채화도구, 검정유성매직.						
학습목표	폐 나뭇가지를 이용한 만들기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분위기에 대한 질문. ▷공원의 폐 나뭇가지에 대한 대화. ▷▶연장을 이용한 나뭇가지 컷팅 과정예시. 					-예시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 질문. ▷표현과정 예시. ▷접착제의 올바른 사용법 예시. ▷▶연장 사용 시 주의 사항 알림. 					-사진자료.	
구상 (9)	▶표현할 형태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판에 스케치→형태표현→나뭇잎과 커피로 배경을 표현. ▶검정유성매직활용. 					-끌과 망치 이용은 연구자가 지도 하에 하도록 지도.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윽하고 은은한 갈색 톤의 나무조형 감상. ▶서로의 작품에 대한 대화.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나무 조형 >



작품 24. 3학년 아동



작품 25. 4학년 아동



작품 26. 3학년 아동



작품 27. 4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24.의 경우는 표현하는 잠자리 몸통 가지가 굵어서 자르는 것을 연구자가 도와줬다. 이 활동의 효과는 아동의 배치능력에서 찾는 것이 더 크다.

▣ 수업결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판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기톱으로 컷팅 하였다. 작품 25. 작품 26. 작품 27.의 몸통과 날개 형태처럼 넓은 단면은 연구자가 직접 산에서 주워 와서 자른 것이다. 나무조형은 연구자가 여러 차례 시도해 본 수업이었다. 이 활동은 연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아주 적합했기 때문이다.

3)고학년 (5, 6학년)

표 15. 나무가 보이는 풍경 - 지끈 표현 -

주 제	나무가 보이는 풍경 - 지끈 표현 -	대상	5, 6학년	장소	영평초등학교	시수	1회
재 료	갈색 계통 지끈, 가위, 풀, 수채화도구.						
학습목표	지끈을 이용한 나무 연상그림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끈을 반대로 풀고 연상되는 형태 질문. ▷▶예시작품 제시. 					-예시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끈의 말려드는 특성 알림. ▷▶학습목표 질문. ▷▶가 봤던 장소, 꿈에 봤던 풍경 또는 동화 속 이야기 등 표현 내용 질의응답. 						
구상 (9)	▶나무 형태 중심으로 한 구체적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끈 자르기→풀기→붙이기. ▶자기가 구상했던 주변 풍경 스케치, 채색 표현. 					-지끈 퍼 바르는 과정 확인.	
감상 (7)	▶지끈 재료를 병행한 작품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나무가 보이는 풍경 - 지끈 표현 - >



작품 28.



활동사진 7. 5학년 아동

▣ 작품분석

활동사진 7.의 아동이 작품 28.를 하였다.

이 활동을 실시한 연구자의 의도는 표현에 대한 부담으로 수업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끈을 풀고 붙이는 과정이 그러한 부담감을 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부담감이 없어지면 표현이 능동적이다. 사실 연구자는 표현에 대한 학년 평균이 있으므로 이 학생이 이렇게 까지 꼼꼼하게 지끈 나뭇잎을 꾸며 낼 줄 예상 못했다. 더군다나 남학생이.

연구자의 안일한 고정관념에 일격을 가했다. 이 정도의 지끈 분량은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조차 쉽지 않다. 단순히 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개념이 아니다. 지끈의 말리는 힘이 접착 풀의 성질을 이기기 때문에 붙여내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다. 90분, 시수 1회 학습 안이었는데 이 학생은 3회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였다. 실로 대단한 인내였다.

▣ 수업결과

풀린 지끈의 형태에서 나무줄기가 연상된다. 그러나 다른 형태를 연상하는 학생도 많을 것이다. 아동들에게 자기의 연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길러줘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표 16. 아연판 석고 부조

주 제	아연판 석고 부조	대상	5, 6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2회
재 료	아연판, 석고가루, 콜핀, 유성네임펜, 아연판 잉크, 신문지, 우드락, 붓, 천.						
학습목표	아연판을 이용한 석고부조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작품 제시, 재료에 대한 질문. ▷고 부조, 환조 개념과 비교하여 부조의 뜻 알림. ▷아연판의 특성을 이용한 부조 과정 예시. ▷1:1의 비율의 석고 뜨기 과정 예시. ▷▶석고 액 넣기 전, 비눗물 넣는 이유 질문. ▷▶석고 뜨기 과정 중 망사를 넣는 까닭 질문. ▷각 재료의 쓰임새와 주의사항 알림.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과정 질문을 통한 학습목표 확인. ▶도안 자료 참고 관찰. ▷▶ 활동과정 제 차 점검. 					-도안예시자료. -과정 판서.	
구상 (9)	▶표현활동 구체적인 계획.						
표현 (43)	▶유성 네임펜으로 스케치→ 우드락 위에 아연판 올려 놓고 콜핀으로 문지르기→ 판을 뒤집어 다양한 방법으로 배경 표현→신문지를 깔고 아연판 잉크 바르고 닦는 과정 2~3번 반복→테두리 접고 비눗물 칠하기→ 안쪽에 석고 액 붓고 망사 중간에 집어넣기→ 아연판 테두리 펴기.					-아연판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지도.	
감상 (7)	▶고풍스런 아연판 부조 작품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 도구정리. ▷다음 시간 예고. 						

< 아연판 석고 부조 >



작품 29.



작품 30. 6학년 아동



작품 31. 6학년 아동



작품 32. 6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29. 작품 30.의 아동은 평소 끈기와 의욕이 있는 학생이고,
작품 31.의 학생은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관심은 있다. 그리고 작품 32.
의 아동은 관심과 끈기, 소질까지 있는 학생이다. 사실 이 결과물들만 보면 판가
름이 안 간다. 그 만큼 아연판 석고 부조 활동은 어떠한 조건을 떠나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과정이 힘들었던 것만큼 보람도 컸다.

▣ 수업결과

작품 31.의 학생은 표현력에 자신을 갖게 되었고, 작품 29. 작품 30.의 학생은
미술적 감각을 얻었다. 또한, 작품 32.의 학생은 회화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었
는데 부조 활동의 체험으로 더욱 자기 재능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표 17. 요리 퍼포먼스

주 제	요리 퍼포먼스	대상	5, 6학년	장소	대정청소년 수련관	시수	1회
재 료	흑미 밥, 흰쌀 밥, 피망, 토마토 케찹, 취사도구, 여러 가지 야채, 1회용 비닐장갑, 하드보드지.						
학습목표	재밌는 요리실습 체험을 통한 미술작품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재밌는 요리 체험활동 알림. ▷ 퍼포먼스의 뜻 알림. ▷▶ 조리 장의 식 도구와 사용법, 주의사항 알림. ▷ 결과물,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예고. ▷ 활동과정 예시. 					-예시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확인. ▷▶ 예시사진 자료와 상상을 동원한 표현에 대한 대화. 					-사진자료예시.	
구상 (9)	▶ 준비된 음식 재료의 질감, 색, 형태 등에서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고 의견을 모아 활동에 임함. ▶ 다른 조의 활동을 참고하여 표현.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 맛있게 시식. 					-특별히 칼, 가위 사용에 따른 안전 교육 강조.	
감상 (7)	▶ 실물작품과 디지털 카메라 작품의 비교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요리 퍼포먼스 >



작품 33. 5학년 아동



작품 34. 6학년 아동

■ 작품분석

그림에서 액자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요리 활동을 마무리 한 후,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색상의 하드보드지를 대도록 했다. **작품 33.**의 남학생 아동은 이러한 수업이 처음인지라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작품 33.**은 수업 종료 20분전 까지도 주저하고 있어서 예시작품을 보고 흉내 내도록 한 것이다.

작품 34.의 여학생 아동은 흑미 밥에서 돌하르방의 이미지를 얻고 표현하였다. 시종일관 자신감을 보였다. 부추인 경우는 활동 후 시식할 것에 대비해 간이 밴 식초를 뿌리는 센스까지 보였다.

■ 수업결과

수업 시작 단계에서, 요리로 무엇을 표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아동들의 눈빛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연구자가 강조한 부분은 ‘편한 마음’, ‘그냥 요리하듯이’란 말로써 자연스러운 활동을 유도하였다.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미술표현에 바로 영향력을 미친다.

요리퍼포먼스란 특별한 활동으로 아동들은 미술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또한 모든 것이 미술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가 의도했던 이 학습의 목적이다.

표 18. 한지 조명 등

주 제	한지 조명 등	대상	5, 6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2회
재 료	A4용지, 철사, 공예철사, 가위, 지끈, 한지, 소켓, 전선, 플러그, 전구, 밀가루 풀, 붓, 광택제, 신문지, 마스킹 테이프, 송곳, 글루건.						
학습목표	장판지심을 활용한 실용적인 한지조명등 재활용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작품 조명등을 켜서 아동들의 반응 살핌. ▷▶ 제작과정 질문. ▷ 장판지 심을 활용하여 훌륭한 조명등의 재탄생 강조. ▷▶ 필요한 재료 질문. ▷ 조명등 제작과정과 전구연결과정 예시.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질문. ▷ 제작과정 확인. 						
구상 (9)	▶ 구체적인 조명등 표현 계획.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판지 심, 송곳으로 4~5군데 구멍 뚫기→ A4용지 초벌 붙이기→철사와 공예철사로 조명등 갖 거치대 연결하기→마스킹 테이프로 철사 부분 감싸기→ 철사로 조명등 갖 모양 뼈대 만들기→뼈대 부분에 A4용지로 감싸듯 붙이기→장판지 심과 조명등 갖에 두벌 한지 붙이기→한지 뜯기→글루건으로 꼬은 한지 갖 테두리에 붙이기→전구 연결→광택제 바르기. 					-송곳 사용은 연구자만 함. -글루건 사용 시 주의하도록 지도.	
감상 (7)	▶ 자기가 만든 조명등 불을 켜고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한지 조명등 >



활동사진 8.



작품 35. 6학년 아동

▣ 작품분석

활동사진 8.의 아동이 작품 35.를 만들었다. 학습목표가 실용성을 위주로 한 만들기인 만큼 제작 과정 중, 사용 불편함이 없는 가를 우선으로 하여 점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자면 조명등 갓을 씌웠을 때 거치대는 흔들리지 않는지, 또는 조명등 갓이 몸통을 통과하여 빠져 내려가지 않는지 등에 대한 사항들이다.

▣ 수업결과

다소 난이도 있는 과정이었으나 아동들은 결과물을 생각하며 열심히 작품 활동에 임했다. 만들고 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다는 연구자의 말을 듣고 더욱 좋아 하였다.

표 19. 발포 석고 조각

주 제	발포 석고 조각	대상	5, 6학년	장소	노형초등학교	시수	2회
재 료	발포석고, 조각도, 연필, 면장갑, 검정색상 하드보드지, 아크릴판, 자, 칼, 은색 스펀지, 가위.						
학습목표	발포석고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포 석고 예시작품 제시 후, 조각에 대한 질의응답. ▷ 소조와 반대 개념으로 조각의 뜻 비교 설명. ▷▶ 발포 석고 재료 느낌에 대한 대화. ▷ 조각에서 받침대의 역할 알림.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확인. ▷ 주의사항 알림. ▷ 하드보드지와 은색 스펀지를 이용한 받침대 제작 예시. ▷ 주제의 선택과 제작 과정 알림. 					-사진자료.	
구상 (9)	▶ 자료 참고, 구체적 계획.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치→대략적인 조각→세부조각. ▶ 조각 활동 시 가루가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아크릴판 대고 받침대 제작. 					-칼과 조각도 사용 시 순회 점검.	
감상 (7)	▶ 발포석고와 검정 하드보드지, 은색 스펀지의 조화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발포 석고 조각 >



작품 36. 5학년 아동



작품 37. 6학년 아동

▣ 작품분석

작품 36.의 남학생은 조각에 너무 몰입하다보니, 자꾸 연구자의 주의를 받았다. 어느 순간 보면 손이 조각도 앞에 나가 있거나, 가루를 휘날리며 조각자체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어서 매 중간마다 의도적으로 조각활동을 멈추게 하였다.

작품 37.의 여학생은 전체 형태의 느낌을 매끄럽게 설정하여 조각하였다. 활동 과정 중, 연구자의 주의 사항을 유념하고 조심스럽게 조각 했다. 처음, 다리부분의 동세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츰 흥미를 보였다.

▣ 수업결과

5 ~ 6학년 아동이 조각하기에 발포석고는 적합한 것 같다. 단단한 상태가 아동들 스스로 깎아 내기에 적당한 정도이다. 그러나 조각도의 위험성으로 연구자는 조각 수업을 할 때마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구자에게 조각 수업은 긴장의 연속이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면장갑을 준비하긴 하나 아동들이 사용하는 조각 재료에는 안전 장갑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0. 페이스 페인팅

주 제	페이스 페인팅	대상	5, 6학년	장소	대정 청소년수련관	시수	1회
재 료	페이스 페인팅물감, 붓, 팔레트, 물통, 모양 판, 당근, 칼.						
학습목표	재밌는 페이스 페인팅 활동 체험.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 페인팅 경험에 대한 질문. ▷▶ 페이스 페인팅물감의 특성 예시와 질의응답. ▷ 페이스 페인팅에 적합 한 그림 형태 질문. ▷ 활동 후 결과, 디지털 카메라 촬영 예고. 					-예시 작품.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확인. ▷ 주로 행사 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페이스 페인팅의 특징 알림. ▷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한 당근모양 판 병행 예시. 					-도안 자료.	
구상 (9)	▶ 도안 자료를 보고 상징적이면서 간단한 모양 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얼굴이나 팔, 손, 또는 몸 등에 그리기. ▶ 당근으로 형태 조각, 병행하여 찍기. ▶ 활동결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재미있는 수업이니 만큼 장난이 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절함.	
감상 (7)	▶ 친구들의 활동 결과물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페이스 페인팅 >



작품 38. 6학년 아동



활동사진 9.

▣ 작품분석

작품 38.의 학생은 여러 차례 그리고 지우는 행동을 반복하며 즐거워했다.

활동사진 9.는 아동들이 자기 손에 열심히 페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활동은 평소, 미술표현에 소심했던 아동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수업 활동에 심취되었다.

▣ 수업결과

이 수업은 서로가 서로의 표현에 봐 주고 권하는 행동에서 친구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기회도 되었다. 수업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가끔씩 진행하면 효과를 보는 활동이다. 심상 표현이 특징이라는 과목의 성격을 생각하자면 아동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이러한 수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21. 그래피티 - 스프레이그림 -

주 제	그 래 피 티 - 스프레이 그림 -		대상	5, 6학년	장소	대정 청소년수련관	시수	1회
재 료	하드보드지, 다양한 색상의 스프레이.							
학습목표	스프레이를 이용한 그래피티 작품 활동 표현.							
단계 (시간:90분)	교 수 학 습 활 동 (연구자→▷, 학생→▶)						유의점 및 예시자료	
도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피티에 대한 질문 . ▷ 활동사진과 예시자료 제시. ▷▶ 그래피티의 특징 알림. ▷ 3~5명이 조를 이뤄 활동 할 것임을 예고. ▷ 디지털 카메라로 결과 촬영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작품. - 활동사진. 	
동기부여, 발상유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재료와 학습목표 질문. ▷ 스프레이의 올바른 분사 법 예시. → 타이밍과 속도감 조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음악. 	
구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를 짜고, 형태 표현구상. 							
표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당한 거리에서 스프레이 스케치→ 채색을 위한 스프레이 분사. ▶ 액체가 고이지 않도록 조절 분사 표현. ▶ 결과 활동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레이 분사 시, 서로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 지도. 	
감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팀 활동물과 다른 팀의 작품을 비교 감상. 							
정리 및 차시예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도구정리. ▷ 다음 시간 예고. 							

< 그래피티 - 스프레이 그림 - >



활동사진 10.



활동사진 11.

▣ 작품분석

활동사진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 학생들은 스프레이 분사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대고 뿌렸다. 그러나 차츰, 신나는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굳었던 손들이 풀렸다.

▣ 수업결과

그래피티는 행위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만큼, 아동들이 즐겁게 활동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수업은 아동들의 능동적인 참여 태도를 모색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또한 이 수업은 결과 후 정리가 중요하다. 팀을 이뤄 활동 한 만큼, 정리할 때에도 협동심을 발휘 하여야 한다.

6학년 아동들 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활동이 큰 수업을 꺼려할 수 도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활동을 계획할 때 이점을 특히 고려해야 했다.

VI. 결 론

미술교육의 효과는 창의력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창의력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나 창의력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견제해야 할 부분은 상상력의 남발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력은 긍정성이 있고 상상력은 부정적 일면도 있다. 새로운 생각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공통되나 창의력은 신선함과 동시에 타당성이 수반되어 있다. 타당성은 객관적 기준이 내재됨을 뜻하는데 상상력의 부정적 일면은 타인의 시각에선 불안전하거나 이상하게 비춰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부정적 일면은 사회적 규범까지 무시한 혐오감을 포용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창의력은 타인의 시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발상이며 존중이 있는 긍정적 측면을 말한다.

창의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제지 하지 않거나 표현 활동 그 자체만을 지켜본다는 건 방치 개념이다. 무절제한 상상인지, 또는 자기 습관적 낙서와 조작 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술교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아동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선 자율이 아니라 일종의 방관일 수도 있다. 일깨워 줘야 한다고 판단 될 때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기의 적절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연구자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교사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형태의 표현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래 집단에서 오는 상징성을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그대로 방관 할 수만은 없다. 만약,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않으면 미술교사의 존재감은 없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는 아동들의 목적 없는 자유로운 표현 행태에서 창의력을 주창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기본적인 태도를 길러줘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미술교사는 아동들에게 숨어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 줄 의무가 있다. 창의력은 허황된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비롯된다. 경험에서 터득한 자신감이야 말로 창의력을 발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창의적인 인간형은 일반

적인 사고나 규범을 준수하면서 자기의 특별함에 빛을 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자이다. 미술적 창의력을 통한 타 영역에서의 연계성을 발휘하는 것은 미술교육의 가치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 미술 수업은 심상 표현이라는 특성이 있다. 심상표현은 아동들의 정서를 순화 시킨다. 이러한 심상표현의 연습은 창의력을 증대 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미술교사는 효율적인 방식에 대하여 탐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도상에 대한 방법적 측면이다. 연구자의 재료를 통한 접근은 미술을 거부했던 아동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방법적 측면은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연구자가 터득한 경험의 결과이다. 연구자가 특별히 흥미를 강조한 까닭은 연구의 대상이 미술과목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아동들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많은 아동들이 학부모들의 강제권고로 의해 미술수업에 이끌려왔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이 미술을 신청한 줄도 모른 채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은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아동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수동적인 사고는 둘째치고 아예 생각 자체를 하려고 들지 않는 태도가 연구자를 정말 난감하게 할 때가 허다했다. 흥미는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하여 재료를 병행하는 것이고, 주제의 설정 또한 흥미 있는 수업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 어떤 노력도 흥미로움을 이겨 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효율성부분에서 노력이 흥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흥미로움은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자발성과 탐구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미술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재료라는 매체를 통하여 미술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교수학습 활동을 토대로 한 본 연구는 아동의 특성과 재료를 통한 반응, 교육활동여건, 수업결과와 작품분석 등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하여 연구자로서는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아동들의 역동성과 돌발적인 수업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미술교사가 지녀야 할 창의적인 자질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기대되는 효과로써, 첫째, 아동들이 각 재료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기를 바란다. 즉, 다양한 재료들을 직접 체험 해 봄으로써 각 재료들의 특성을

아는 데에서 아동들의 감각을 길러내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그 재료에서 다른 주제를 연상하는 기회를 얻고 창작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한 재료를 통한 다른 주제의 연상은 연구자가 아동들에게 유도해서 발상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재료에의 체험으로 착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풍부한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연상의 연결 고리는 다양한 재료를 체험한 아동의 흥미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향 후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의 최소화이다. 시행착오의 최소화란, 연구자 입장에서의 착오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재료의 병행 활동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수업이다. 사실 아동들이 그 수업에 흥미로움을 갖기 위해선 교사 자신이 흥미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활발한 수업진행, 즉 음성의 톤과 속도감, 제스처 등의 다양성은 언어적 의사소통에 버금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러한 수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하여 재료라는 매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론적 학습지도안의 계획이 실제적인 재료 체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계획된 학습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교사의 재료를 활용한 다양성 확보야말로 아동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여 미술과목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심어 주게 되는 것이다. 재료사용에 대한 미숙함과 부적절함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많은 재료에의 체험을 쌓아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양한 재료에의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미술교과에 흥미를 갖고 창의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적 함양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김삼량(2000),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김정(1993), 「세계의 미술교육」, 예경.
권상구(200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문형준(2000),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안영기·김춘일(1991),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윤명술(2006), 「창의성 계발의 아동화 지도」, 미술공론사.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한국미술교육학회(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번 역 문>

- Elliot.W.Eisner 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예경.
Elaine Pear Cohen · Ruth Straus Gainer 공저, 서울대
미술교육연구회 역(1998),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미진사.
Elliot W. Eisner 저, 김인용 외 역(1995), 「학문기초미술교육」, 학지사.
Viktor Lowenfeld · W.Lambert Brittain 공저,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1998),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논 문>

- 김성기(2007), “입체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심(2005), “미술교육에서의 재료 활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배혜진(2006), “미술 방과 후 학교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표현기법연구”,

-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지영 (2003), “재료확장을 통한 조소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서현 (2008), “아동미술교육의 창의성계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표현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경 (2008), “확산적 재료·용구탐색 활용을 통한 창의적 미술표현력
신장”,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Methods with the Utilization of Various Materials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e-ra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Art Education

Advised by Yong-hwan Kim

The role of art education is to cultivate emotions and promote creativity through an art subject.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art education is creativity development, and this creativity development provides connectivit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all sciences. This is also the goal of art education. In improving creativity, it is important for an art teacher to make students feel interested in art by arousing their spontaneity more than any other thing. Unlike the intention of a teacher, for students who do not feel interested in art and for students whose self-confidence is lacking in art despite their interest in and attention to art, art activity itself becomes their burden. Specifically, this phenomenon becomes more evid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e to the limitations on time.

The researcher taugh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several years and noticed the obvious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failed to have an interest in the art subject. Such students were forcibly urged to improve by their parents. Despite the fact that the art subject is effective for enhancing image expressions and observation, children were unable to utilize their strengths with a passive attitude because of this compulsion from others. This motivated the researcher to study teaching methods to generate students'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the class. As a result, one of the approaches provoking their interest was a creation activity by using materials. So to speak, students who felt uncomfortable with the art subject needed a sort of vehicle that was able to attract their attention, which created an opportunity for them to approach ar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g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lower school years, the focus of the teaching methods was placed on the demonstration of imagination mainly driven by curiosity due to their low concentration ability, and students were led to experience diverse materials overal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years, who are the most likely to be indifferent to the art subject from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ll school years, their class was given an opportunity to gain an interest in and experience in-depth art. That is, the study established themes so that students can approach the art subject by developing curiosity and having fu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terial.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school years who show clear depolarization in terms of expressions, they were taught the in-depth process and the complementary process, respec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earcher. The in-depth process highlighted a theme in the class by fully utilizing materials whil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expressions; the complementary process was for students who experienced difficulty in expression itself, and the accompaniment of materials in the class enabled them to have self-confidence by serving as a buffer.

The intrinsic nature of the study of teaching methods from a methodological aspect as proposed by the researcher aims to enhance creativity that requires the conversion of thinking by elongating expressions in accompaniment with art materials.

The researcher proposed the following centering on such efficiency of education.

First, the acquisition of basic technique that improves children's senses through the appropriate use of materials, that is, a plane work, students were allowed to experience the feeling at the tip of fingers and changes according to amount and concentration, in person. Also, it was emphasized in the cubic work that the nature of glue, timing, and the control of force is no less important than expressing a shape.

Second, the cultivation of interactive application ability in the plane work and the cubic work through the accompaniment of materials was valued. Therefore, students pursued their cubic expressive activities even in a poor class setting in school without being limited to expressing the plane work.

Third, it is the expansion of imagination based on appropriate connection in acknowledgement of the property of each material. In other words, stude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associate one material with another theme.

The emphasis of the utilization method of materials and techniques by the researcher may be biased toward the functional aspect with students. As a counter-action to this, the researcher fully used the communication time with example data in the course of motivation with students. Also, the research put forth efforts in stirring their spontaneity in expressions and appreciation while spotlighting the theme itself. For example, in coping with the one-way teaching of a teacher and the passiveness of the students, the researcher actively utilized a motion in the introductory stage and tried to maximize the

expression of the feeling from the theme.

In the tacit gestures of the researcher who wanted to communicate the theme, children concentrated their attention with a glimmer in their eyes, full of curiosity, even during their distracted behavior. Then, the children were easily assimilated with the gestures and mobilized their imaginations and creativity by associating the gestures of the researcher with the shape of something after seeing the gestures. As intended by the researcher, when the question and answer process for motivation began, the atmosphere in the class naturally fostered absorption and curiosity, and it became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felt intimidated in the art subject, to gain self-confidence. To put it in another way, the intention to maximize the expression of the theme by the researcher is a medium and a goal as one of the art education methods.

By assuming multilateral approaches to education, it is possible to arouse children's interest, which is a key in provoking their curiosity. Such experiences with various materials enabled children who were not interested in art, to develop curiosity about and interest in art. The goal of the teaching method via the medium and materials is the extension of creative expression. The driving force of creativity is self-confidence, and self-confidence stems from experience. Moreover, the creation of such self-confidence needs the improvement of expression.

The improvement of expression is achieved by stirring up the senses in children, and the senses first need the arousal of impression. Without impression, there would be no advance. To feel impressed, which is the source of expression and creativity, is possible for any of us. For this,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arousal of the concept of basic techniques by using vocabularies used for expressing concrete and detailed feelings instead of abstract feelings during the activity course every time.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the results of the class given to 20 students in lower school years and 15 students in higher school years in each class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Nohyeong, Singwang, and Yeongpyeong in Jeju City from 2006 to 2008. Also, the study added 20 elementary students in each class of the Daejeong Youth Training Hall and of the Namwon Youth Cultural House.

The reason why the scope of the research subjects cov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ll school years is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each student and connectivity by school year.

That i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year, first and second graders were given a clue for teaching, and third and fourth graders were offered in-depth teaching steps for fifth and sixth graders. In the meantime,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ach school year, which stands out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year, thes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mannerism of the stereotyped teaching method that is entrusted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subjects. The respe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s the foremost point for an art teacher to realize.

Ultimately, in performing art education, the researcher intends to cultivate students' senses that help them to have an eye for the ratio, only with eye measurement without official, mechanical scales through methodological medium, namely the utilization of materials and techniques, and, further to realize the increase of creativity through art.

There will appear children who will demonstrate their various creativiti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 through the experience of diverse materials. To cultivate the artistic sense in this era in which the shifting of thinking in ideas is generalized, tremendously affects children's emotions, and, further,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 for displaying creative connectivity to other areas.



※ The study is a thesis for a master's degree that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09.

부 록



< 같은 재료 다른 느낌 - 1 >

정물수채화(사용된 재료: 수채화도구) - 1학년아동들 -



포도표현이 생동감이 느껴진다.
투명 수채화의 효과를 잘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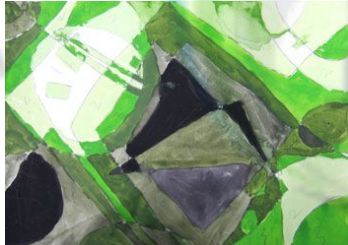


수성사인펜화 느낌이다. 구의 형태
에서 받침대의 세부적인 것에 주력
하다 보니 전체형태를 잃었다.



각 형태마다 조심스럽게 표현
하려고 하였다. 전체적인 색감이
다소 약하다.

평면구성(사용된 재료: 포스터물감) - 6학년아동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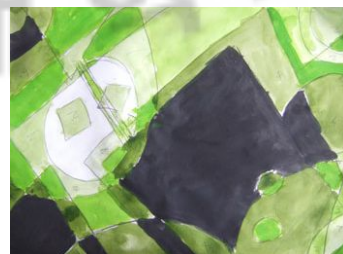
화면 구성이 잘 됐고, 명도 차 또한
자연스럽다.



채색면에서 포스터물감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 심분 발휘하였다.
색상 간 그라데이션 효과가 약하다.



화면구성이 단순하고, 포스터물감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투명수채화
느낌이다.



화면이 매끄럽게 잘 처리되었다.
명도단계를 약 2도정도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같은 재료 다른 느낌 - 2 > 인물수채화

- 5학년아동들 -



부동적인 인물형태의 보완으로 바탕에 붓 터치를 냈다.



색상의 농도 조절이 자연스럽다.



형태의 비례감이 낮으나 율동감이 느껴진다.



표정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얼굴의 사실묘사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무채색 사용 없이 흑백의 표현에 주력했다.

< 다른 재료 다른 느낌 - 1 >

- 4학년아동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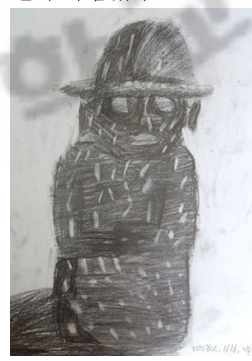
우드락, 골판지, 목공본드, 수수깡 등의 재료로 만들었다.



수묵화 작품이다. 먹의 농담 조절에 유념했다.



수채물감을 이용한 단색상의 인물크로키이다.



H, B, 2B, 4B, 6B, 8B를 다 사용해 본 연필 소묘이다. 지우개도 활용한 표현이다.

< 다른 재료 다른 느낌 - 2 >

- 2학년아동들 -



한지, 밀가루풀, 우드락, 포스터물감, 광택제를 이용한 작품이다.



지점토에 이쑤시개로 풍경을 그렸다. 부조 느낌이다.



화선지에 고무판화를 표현했다.



커피로 표현한 인물화이다. 농도조절이 잘 되었다.

< 다른 재료 다른 느낌 - 3 >

- 3학년아동들 -



수성 사인펜화이다. 수채화 효과가 난다.



늘, 사용하던 종이는 다른 질감을 체험하고 있다.



골판지 붙이기와 그리기를 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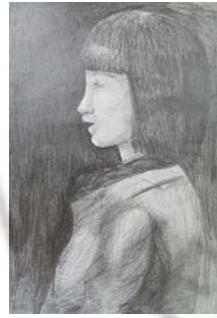
세모 칼을 아주 잘 활용한 고무판화이다.

< 다른 재료 다른 느낌 - 4 > 각 학년 대비 회화 표현

소묘



4B연필 사용, 1학년아동작품이다.
인물이 화면 밖으로 튀어 나올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진다.



8B 연필만을 이용한,
6학년아동작품이다.
표현력이 뛰어나다.



검정 수성사인펜을 이용한
2학년아동작품이다.



목탄을 이용한 3학년아동
작품이다. 목탄은 학년대비
표현력과 흥미도도 낮은 경우,
효과가 있었다.

투명수채화



5학년아동작품이다. 빨간색 물체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했다.



4학년아동작품이다.
불투명 수채화느낌이
들지만, 정의 있는
표현이다.